

## 近始齋 金垓의 [鄉兵日記]

### 沈壽哲

#### 1. [향병일기] 개요

☒향병일기☒은 조선 중기의 안동 예안의 의병장이며 선비인 김해(金垓:1555-1593)의 일기이다. 임진년(1994) 4월 14일부터 이듬해 계사년 5월 7일까지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안동 열읍 향병을 지휘하면서 의병들의 모집 과정에서부터 예안.예천.용궁.당교.일직.의성.영천.인동.경주 등지를 순시하며 의병장으로 기량을 다하고 39세의 일기로 순국한 근시재의 애국 사상과 충의 정신이 발현된 일기이다.

주목되는 이 일기가 당시 군사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던 당교 전투의 진행 과정을 국내 어떤 서책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로써 당시 당교 전투 사적을 복원해 낼 수 있다. 당시 당교 전투는 임란사에서 매우 주요한 전투로 거론된다. 이는 안동 열읍 향병들의 투철한 선비 정신의 발현에서 가능한 것이다.

안동 선비 의병들의 향토애와 애국심이 근간이 되어 멸사봉공의 정신 실천이 당교 전투에서의 승리를 가능케 했다. 재지 사족들은 이러한 향병 조직을 위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초유사로 활약했던 학봉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학봉은 초유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향병들과 도체찰사 감사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 하에 공조를 통해 왜적 소탕이라는 대명제 실현에 함께 공헌하였다. 이러한 점도 안동 열읍 향병 조직 운영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근시재의 생애를 간명하게 정리하고 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 2. 근시재의 생애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의 자는 달원(達遠)이며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그는 1555년(명종 10)에 예안면 오천리에서 읍청정 김부익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생후 7일 만에 모친을 여의고 백부인 후조당에 의해 양육되었다. 후일 자식이 없던 백부의 후사를 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현의 학문에 뜻을 두어 가정의 훈계를 받으면서 퇴계 선생을 사숙하였다. 그는 그 순수한 자질로 널리 배워 요약하는 학문을 겸비하였다.

그는 서실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연구하여 터득한 것이 있으면 속히 기록하고 모른 것이 있으면 월천·학봉·서애선생에게 질문하였다. 예서를 좋아하여 언제나 비지 남치리와 그 예문이 옳고 그른 것과 역대의 치란을 논하여 터득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는 시문을 지을 때는 전야하고 명료하게 하였고, 문채와 본질이 갖추어져 있었다. 퇴계 성리철학의 요지를 연구하여 터득했으며 천문·지지·병법·의서·복서 등도 날마다 공부하였다.

부모에게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종족을 성심으로 대했다. 임오년(1582)에 부친상을 당했을 때 매우 슬퍼하며 예와 공경을 다했다. 그 후 정해년(1587)에 추천으로 광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듬해 사직서참봉에 제수되었다. 곧 사마시에 합격하고 사직하였다. 다음 해에 연은전참봉에 제수되었으며 이내 별시에 급제하였다. 예문관한림이 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동료들이 사초를 불태운 사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가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관직만 삭탈당하고 돌아왔다.

그 후 4년이 지난 임진년(1592)에 왜적이 창궐하여 국왕이 몽진하였다. 이때 고향에 있던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맹세하고 의병을 일으키니 여러 의병들이 공을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공의 부서에 동지들을 규합하여 이경백과 배용길을 좌우부장으로 임명하여 의병의 명성을 크게 떨쳤다. 당시 초유사 학봉 김성일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의병

을 일으킨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내용이 비분강개하여 그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때 그는 안동에 진지를 설치하고 예천에 있는 적도를 압박하고, 또 오랑캐를 생포하여 관찰사에게 바쳤다. 여러 병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의리로 저항하여 왜적들을 섬멸하고자 하나 그 성패를 알 수 없으니 오직 한 번 죽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 밀양으로 진영을 옮겼을 때 부인 이씨가 세상을 떠났다. 아직 초상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고향으로 가서 하룻밤을 잔 뒤에 다시 돌아왔다. 군영에 도착하기도 전에 병이 생겨 경주에서 6월 19일에 3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모든 군병들은 우레소리처럼 통곡하였고 그 소문을 들은 원근의 사람들은 친척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다.

그 후 을미년(1595)에 선조는 그에게 홍문관수찬을 증직하여 그의 충성을 포상하였다. 부인은 진성이씨 재(宰)의 딸이며 의(滄)의 손녀이자 퇴계 선생의 조카 손녀이다. 부인은 정숙하고 유순하여 친족들이 모두 그의 행실에 감복하였으며 그보다 1개월 먼저 세상을 떠나니 향년 42세였다. 슬하에 4남 3녀를 두었다.

이어 일기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항병일기☒는 임란의 체험 문학의 여러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다. 안동 항병 구성부터 김해가 의병장으로 소임을 다할 때까지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임란 전투사와 백성의 참상 및 항병의 의로운 행적 소개 등 다양한 국면이 제시되고 있다. 근시재의 애국 사상과 행적을 기록한 ☒항병일기☒ 탐색을하기로 한다.

### 3. 충의 정신의 발현

다음에 제시하는 대목은 안동 의병 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안이다. 안동 항병 조직의 발단이 되는 사안이다. 예안 현감 신지제의 역할이 주목된다.

판관(判官) 윤안성(尹安性)이 패전한 곳으로 돌아와 병사를 모아 거사하려고 3일 동안 종을 쳤으나 호응하는 사람이 없자 또한 달아났다. 예안 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梯)만 떠나가지 않았는데, 관아의 이속들이 감히 제 멋대로 할 수 없어 소란을 피우며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임진년 4월 14일)

판관 윤안성이 3일 동안 종을 치며 군사를 소집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신지제만은 관아를 떠나지 않고 사수할 길을 모색한다. 이 때문에 관아의 이속들은 불평이 크다. 이런 의거는 집단적인 세력 규합으로 연결된다.

배용길(裴龍吉)이 퇴계(退溪)에 있는 내한(內翰:한림학사) 김용(金涌)을 찾아와 의병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는데, 조금 있으니 안집사(安集使) 김륵(金玝)이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와서 그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 예안 현감 신지제가 가서 권하니 비로소 예안현(禮安縣)으로 왔다. 부모(父老)와 선비들을 불러 군사를 일으킬 것을 상의하는데, 이 때 군부(軍簿)가 쓸어버린 듯 다 없어서 정비하여 집행할 수가 없어 선비들을 이장(里將)으로 삼아 각자 거주하는 마을에서 군정(軍丁)을 점검하고 왜구를 막도록 하였다. (임진년 6월 1일)

배용길은 김용을 찾아가 의병 거사를 모의하였다. 김륵과 신지제 및 부모들과 선비들이 상의하여 본격적으로 의병 거사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신지제의 역할이 매우 컸다. 그는 의병 거사의 당위성을 천명하고 매사 적극적 자세로 이 일에 앞장섰다. 배용길, 김용, 김륵, 신지제 등이 이러한 초창기 항병 조직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다. 이어 이는 좀더 체계적 조직을 갖추게 된다.

예안 온 고을이 의리로 떨쳐 일어나 모두 모여 상의하기를, “어찌 공백한 산속에 숨어 있더라도 군부(君父)의 위급함을 안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하고는, 각자의 자제와 공사천(公私賤)의 노비를 차출하니 거의 300여 명에 이르렀다. 한적한 곳에서 활쏘기를 익히되, 생원 금응훈(琴應勳)을 도총(都摠)으로, 전 한림(前翰林)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삼아 거사의 기점으로 삼고, 진사 이숙량(李叔樑)이 격문(檄文)을 지어 열읍(列邑)에 포고하였다. (임진년 6월 11일)

이에 온 고을이 의리로 일어나 저마다 공사 노비를 차출하여 300여 명에 이른다. 금응훈을 도총으로, 김해를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선비들을 이장으로 삼아 거주하는 고을마다 군정을 점검하여 자발적인 민방위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이와 함께 이숙량은 격문을 지어 열읍에 돌린다. 이렇게 예안 온 고을이 의리로 일어나 서로 모여 조직된 안동 항병은 총 412명에 달한다. 주요 직책을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연번	직책	성명	비고
1	大將	金垓	

2	都摠使	琴應爨	
3	整齊將	金澤龍, 金圻	
4	副將	金光道, 金光積	
5	軍糧摠	李詠道	
6	軍官	金垺, 蔡衍, 金坪	
7	掌書	琴標	
8	有司	柳誼, 朴夢聘	
9	騎兵	黃振紀, 禹成積 외 55명	
10	步兵	李士純, 金址 외 367명	
11	軍糧提供	趙穆, 琴應夾, 金富倫, 徐千一, 李叔樛 외 41명	총 412명

이어 진행된 임하현 송정 회합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대의 명칭을 ‘안동향병’이라 하고 구체적인 향병 활동을 개시한다. 격문을 통해 모인 의병들은 울분과 의기가 합치되어 나라를 위해 일신의 안일을 도모하지 않고 보국하고 헌신한다는 결의와 충정으로 충일하다.

전 현감 이유(李愈)·전 현령(前縣令) 권춘란(權春蘭)·전 한림 김용 및 김운명·김운사·이형남(李亨男)·김(金원문 빠짐)·배용길·이응타(李應臺)·신경립(辛敬立)·권익형(權益亨)·금몽일(琴夢驛)·권종윤(權終允)·권태일(權泰一)·권덕성(權德成), 권중광(權重光)이 임하현 동쪽 기사리(耆士里) 송정(松亭)에 모여 서로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의 수레가 용만(龍灣)으로 피난을 떠나고 비린내 나는 더러운 먼지가 중요 사적을 뒤덮으니 원통하고도 원통하다.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개와 양 같은 무리와 한 하늘 아래 살아간다면 다시 어찌 얼굴을 들겠는가! 뒷사람을 친애하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의리에 대해 서는 일찍이 듣고 익숙히 강론하였으니 이 한 몸 죽는 것이 어찌 아깝겠는가? 다만 고을의 군정은 죄다 관청의 장부에 들어갔으니 백면서생이 빈주먹으로 펼쳐 일어난들 어찌하겠는가?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신 하와 자식이 되어 편안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할 일은 나라를 위하여 한번 죽을 뿐이고 성패와 강약은 따질 겨를이 없다. 우리 동지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여 나라의 원수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자 모두들 “옳다”라고 하였다. 서로 더불어 서명하고 서약하여 말하기를, “몸을 잊고 적을 토벌하여… 원문 빠짐…” 배용길과 김용을 소모유사(召募有司)로 삼고, ‘의(義)’자는 스스로 하여 하는 혐의가 있으므로 다만 ‘향병(鄉兵)’이라 부르기로 하고 맹세한 뒤 돌아갔다. (임진년 8월 9일)

이유, 권춘란, 김용, 김운명, 김운사, 이형남, 배용길, 이응타, 신경립, 권익형, 금몽일, 권종윤 등이 임하현 기사리에서 모여 안동 의병진의 조직적 운영을 위해 회합을 가졌다. 백면서생이지만 나라를 원수들이 짓밟고 유린하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어 분연히 일어나 토벌에 앞장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다. 이 무렵 선비들은 개인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맹서한 것이다. 다음 안기역에서 가진 회합은 의성과 의흥 지역 인사들과 의병 거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안기역(安奇驛)에서 모였다. 의성(義城)의 우경충(禹景忠)과 의흥(義興)의 박연(朴淵) 등이 선성(宣城)으로부터 들었다. 충의…원문 빠짐…의 뜻을 말하며 의병을 일으킬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근 열읍의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이 동맹 협력하고 합하여 하나의 부대를 만들면 병력의 세력이 외롭고 약하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안동의 사림들에게 통유하자.” 향교를 진소(陣所)로 삼고 병기를 수리하고 기구를 고쳤다. 순찰사(巡察使) …원문 빠짐… 경상좌도의 선비들 중에 예안의 김해(金垓), 영천(榮川:영주)의 박록(朴濶), 안동의 배용길 등의 성명을 거론하며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였다. 이때 경상우도에서는 김면(金沔), 광재우(郭再祐), 정인홍(鄭仁弘) 등이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영남의 한 도가 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은 경상우도 의병의 힘이 가장 컸다. (임진년 8월 18일)

의성의 우경충과 의흥의 박연과 의병 거사를 추진하면서 합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합군을 편성하여 왜적을 토벌하자는 것이다. 인근 열읍에서 함께 의병을 조직해 왜적 토벌에 힘을 모은다면 서로 협력하는 유익이 있고 토벌 작전도 훨씬 수월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경상우도에서 김면, 광재우, 정인홍 등의 의병을 일으켜 사수했기에 영남 좌도가 그나마 피해가 적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남 우도 거병의 당위성을 천명하였다. 이들을 설득하면서 현

재 의병 거사를 추진한 김해, 배용길, 박록의 성명을 거론하면서 동조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이어 안동 향병 체제 정비의 과정을 보자.

예안의 승문원 경자(承文院正字) 김해(金垓)를 대장으로 삼고, 안동의 생원 이정백과 진사 배용길을 좌우부장으로 삼았다. 이 아래에 여러 유사(有司)에 대해서도 마땅히 기록하여야 한다. 군대는 '안동 열읍 향병(安東列邑 鄉兵)'이라 부른다. 안동을 본진(本陣)으로 삼았다. 대장이 말하였다. "그대들은 참으로 보잘 것 없구나. ...원문 빠짐...동료의 선비들에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적을 대하여 자신이 먼저 말을 몰아 달려가는 것이 오늘 동 맹을 맺은 뜻인데, 그대들은 자신의 수고로움을 원망하고 남이 쉬는 것을 미워하니, 이것은 적을 토벌하기를 싫어하고 구차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순국하는 의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정제하는 때 어찌 사사로이 빠뜨림을 용납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사소한 분함으로 갑자기 약속을 저버렸으니 군중에서 ...원문 빠짐...정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열 겹을 이내에 그대들의 머리가 창에 꿰이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임진년 8월 20일)

이어 안동 향병은 재정비를 하여, 대장에 김해, 좌부장에 이정백, 우부장에 배용길을 임명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완비하였다. 안동 향교를 주 근거지로 삼고, 의병 부대 칭호는 '안동열읍향병'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대장 근시재의 대중 설득을 위한 글에 근시재의 우국충정이 들어있다. 사적인 감정과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대의명분을 우선시하여 의리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사소한 감정을 내세워 대의를 흐린다면 단호한 응징을 가하겠다는 경고도 해 두었다. 다음은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에 보이는 향병 조직과 운영을 위해 물자 지원을 했던 사례이다.

- ① 전 군수(前郡守) 조목(趙穆), 전 현감(前縣監) 금응협(琴應夾), 김부륜(金富倫) 등은 모두 쌀을 납부하여 군량 의 수요를 도왔다. (임진년 6월 11일)
- ② 전 현령(前縣令) 권춘란(權春蘭)이 쌀 10말과 소 1마리를 보내어 군사들의 식량으로 부조하였다. (임진년 9월 5일)
- ③ 전 도사(前都事) 안계(安霽)가 쌀 5말을 보내었다. (임진년 9월 5일)
- ④ 전 좌랑(前佐郎) 이공(李珙)이 전마(戰馬) 1필과 큰 소 1마리, 군량미 2섬을 납부하였다. (임진년 9월 5일)

군대가 진을 치고 주둔하고 있을 때는 군량미 확보가 제일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경제력이 있는 의병 지도층에서 자진 헌납하는 형태로 이것을 수집하였던 것이다. 현령을 지낸 권춘란은 쌀 10말과 소 한 마리를 보내왔으며, 도사를 역임한 안계는 쌀 5말을 바쳤다. 좌랑을 지냈던 이공은 전투에 사용할 말 1필과 군량미 30말 및 황소 1마리를 기꺼이 바쳤다. 이와 같이 재지 사족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의병을 조직하고 또 의병 진영에 필요한 군량과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향토와 조국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초아적인 사상과 애국심이 결부되어 안동 지역의 향병은 근시재 김해와 이정백, 배용길을 부장으로 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약을 하게 된다. 일기는 전란의 참상부터 소개한다.

#### 4. 전란의 참상

☒향병일기☒는 우리 역사상 미증유의 인진왜란 참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유린과 국토의 침탈 양상을 기록하였다. 전란 초기 동래부사 송상현의 순결과 피난 행렬 기록이다.

왜구(倭寇)가 동래(東萊)를 함락하였다.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은 전사하고, 병사(兵使) 이각(李珪)은 도 망하였다. (임진년 4월 14일)

임금의 수레가 서쪽으로 옮겨가니 200년을 백성들이 모여 살던 성대함이 하루아침에 었어졌다. 부자와 부부, 형제가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원통하게 울부짖으니 차마 들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사족(士族)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데, 남자는 재취(再娶)할 수 있어도 여자는 재가(再嫁)할 수 없다. 여자가 재가하여 낳은 자식은 조정의 벼슬도 동반(東班:문반)을 허락하지 않으며, 선비들의 서열에 나란히 서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상과부가 되어 늙도록 집밖을 나가지 않은 여자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빨뿔이 흩어져 비를 거리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는데, 모두 왜구들에게 사로잡혀 왜국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임진년 4월 30일)

이처럼 조선 전역을 침략한 왜구들의 만행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르는 곳마다 약탈과 방화,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분탕질을 서슴지 않았다. 왜적은 상주와 함창 및 문경 일대를 점거하여 갇은 만행과 수탈을 일삼았다.

- ① 적은 상주(尙州) · 반암(盤巖) · 함창(咸昌) · 당교(唐橋)에 벌려서 진을 치고, 날마다 용궁(龍宮) 사거리(沙巧里)를 분탕질하였다. (임진년 10월 24일)
- ② 대장은 곧바로 예안으로 돌아오고 좌부장은 본진에 머물면서 순찰사를 만났다. 우부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단 밀천(丹密川)에 이르러 머물러 묵었다. 이때 왜구가 여러 차례 밤에 지경(地境)을 침범하자 백성들은 밤에 불 안하였다. (임진년 10월 30일)

이러한 왜적의 만행은 일기 기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듬 해 4월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왜적은 명나라 군량미와 의병들의 군량 및 군수품을 약탈해 갔다.

① 이 달 8일 대구(大丘)의 적이 수없이 많이 하양에 난입하여 남은 관사를 모두 불태우고 군량과 명나라 군사에게 지급할 여러 도구들을 모두 약탈해 갔다. (계사년 4월 18일)

② 산양(山陽) 의병(義兵)이 절반이나 왜적들에게 강탈과 노략질을 당하였다. 살인과 약탈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고, 왜적에게 피살된 사람이 산을 이룬다. (계사년 4월 29일)

③ 서경(西京)의 적이 경성(京城)에 들어가 주둔하였는데, 명나라 군사가 말을 몰아 추격하고 선봉 100여명이 들어가, 왜적 1만 여명과 새벽까지 접전하여 왜적 100여명이 탄환을 맞아 죽고 모두 후퇴하여 경도(京都)로 다시 들어가 도성안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 쌓인 머리가 태산 같았다. (계사년 2월 9일)

다음으로 이러한 전란의 참상 앞에서 안동의 선비들은 분명히 발의하여 의병 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의병을 통솔하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군율의 확립이다.

## 5. 엄정한 군율 적용

의병진을 갖추고 나서 군율을 강화하고 정비하는 것은 전시 체제에서 긴요한 일이다.

대장의 모의(謀議)가 아침에 안집사(安集使)를 만나 순찰사(巡察使)에게 4조목의 의견을 올렸다. 첫째는 기율(紀律)을 세울 것, 둘째는 출척(黜陟)을 엄격히 할 것, 셋째는 호오(好惡)를 분명히 할 것, 넷째는 남을 끌어들이 자 기편으로 만드는 것을 신중히 할 것. (임진년 12월 19일)

대장의 모의가 순찰사에게 올린 4가지 조목 가운데 첫 번째가 기율을 바로잡는 일이다. 기율을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군기를 확립하여 의병으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게 함에 있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어 출척을 엄격히 하여 원망이 없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호오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전시이기 때문에 남을 자기편으로 유인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율을 정비해 가는 과정에서 일부 해이해 진 군사에게는 일반적으로 곤장형을 가했다.

① 한 군인이 버릇 배어 말에게 먹이다가 곤장을 맞았다. (임진년 9월 2일)

② 아침에 예안의 군사가 도착하였다. 심지(沈智)에게 곤장을 쳤다. (임진년 10월 21일)

③ 우위군(右衛軍) 홍엄(洪淹)이 한후장(捍後將) 손흥지(孫興智)의 좌석을 빼앗자 즉시 명령하여 붙잡아 꾸짖어 말하였다. “병사가 장수의 자리를 범한 죄는 죽어 마땅하나 죽음을 감하여 곤장으로 다스린다.” (임진년 9월 2일)

개인 행동을 한 사졸과 장수의 자리를 범한 자에게 곤장 형으로 다스렸다. 의병진에서 개인 활동을 통제하고 민폐를 없이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 것 같다. 특히, 위계질서를 문란 시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의병진의 위상 확립과 질서 체제 유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다. 이는 전시에서 전령 없이 군문을 출입하는 자들과 군영을 비운 자에 대해 엄히 단속하는 데서도 파악된다.

① 한후장(捍後將) 군관을 붙잡아 곤장을 치며 꾸짖어 말하였다. “합진을 결성한 뒤에는 전령 없이 출입을 일체 금하니, 모든 것을 막고 금지하여야 벽처럼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진(陣)의 군인이 진중으로 들어오는 데 예도 막지 않아 자리를 빼앗기는 데에 이르렀으니, 혹시 적이 진중으로 들어온다면 어찌하겠는가! 이후로 만약 이러한 일이 있으면 너는 장차 목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군관은 머리를 조아리고 물러갔다. (임진년 9월 2일)

② 대장과 좌부장이 진으로 돌아왔다. 이송(二松)의 김 모의(金謀議) 또한 왔다. 삼위장(三衛將)이 각각 그들의 병사를 거느리고 합진하였다. 우부장의 군관 김여길(金餘吉)과 장서 김강(金綱)의 종이 벌을 받았다. 모두 진을 비웠기 때문이다. (임진년 12월 15일)

합진 체제를 구축한 뒤에 개별 진영의 습관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군령을 시행한다. 모든 것이 상부 지휘 계통에서 하달되는 전령에 따라 출입을 해야 하는 군령 준수를 강조하였다. 재차 이러한 군령을 어길 경우,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는 것도 감수해야 함을 경각시켰다. 이어 진을 잠시 비운 처벌을 감행하였다. 근무 태만에 따른 엄한 징벌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군율이 확립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의병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시에서 민심을 현혹하는 무당도 척결 대상이다.

① 수동(首洞)에 거주하는 남자 무당 득근(得斤)이가 복을 치고 나와 요망한 말로 우매한 백성들을 속이고 현혹 시켜 마을에 폐를 끼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즉시 뒤쫓아 가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대장이 진에 돌아와 처결하기를 기다렸다. (이때 대장은 매복하는 곳에 있었다) (임진년 12월 28일)

② 예천 군수(醴泉郡守)가 군장(軍杖)으로 유생(儒生) 남봉한(南鵬翰)을 장살(杖殺)하였다. 무릇 호령할 때 지극히 엄혹(嚴酷)하였다고 한다. (계사년 2월 25일)

민심을 현혹시키며 폐단을 조장하는 무당에 대해서도 단호한 처분을 내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막고 일치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며 때로 엄한 호령을 하며 장살까지도 감수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율이 정비되어 정예 부대로서 거듭나기 때문이다. 이어 의병들의 전술을 보기로 한다.

## 6. 매복 전술과 진천뢰 사용

의병의 주요 공격 전술은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공격을 가하는 전략이었다. 실제 일기에서 대장이 매복한 군사들을 순시하는 기록들이 많다. 이렇게 매복한 군사들이 왜적을 급습하여 공훈을 세운 사례가 대부분이다. 향병은 왜군에 비해 무장 체제가 열악하여 전면전을 펼치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익숙한 산천 지형을 이용해 요처에 매복했다가 왜적을 일시에 공략해 전과를 올리는 것은 유리하다.

① 이 때 대장은 매복처에 있었다. (계사년 1월 1일)

② 술시(戌時)에 좌우부장이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용궁을 출발하여 예천에 돌아와 진을 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복병장도 뒤이어 도착하였다. 용궁의 수령이 먼저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에 잠복하였다. 복병장이 정병과 관군 2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왜적 1명을 사살하고 목을 베려할 때 매복한 복병이 있어 물러나왔다고 한다. (계사년 1월 6일)

임란 발발 이듬해 정월 초하룻날 대장은 매복처를 순시하던 중이다. 그만큼 의병들에게 매복지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불시 습격을 통해 왜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전략이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충 전략지이다. 이정백과 배용길은 군사를 거느리고 예천에 주둔하면서 용궁 진영과 합세하여 매복 작전을 수행하려고 계획하였다. 복병장이 왜적 1명을 사살하고 목을 베어오려고 할 때, 왜적 복병이 있어 왜적의 목을 베지 못한 채 몸만 빼왔다고 하였다. 다음 기록은 대장이 직접 매복지로 시찰을 간 사실을 말해준다.

대장이 예천군에 갔다. 그곳의 원수(元帥)를 만나 군사의 일을 상의하려는 것이다. 병사(兵使)가 산양(山陽)에서 분탕질하는 왜적을 끊어 막는 일 때문에 저녁에 돌아왔다. 대장은 곧 들어가 3일 날 거사한 일을 물으니, 열읍의 군사를 취합한 것은 본래 크게 거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에 병사 수백 명을 숨겨서 분탕질 하는 적을 덮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계사년 3월 27일)

대장이 예천으로 가서 산양에서 분탕질하는 왜적을 소탕하기 위해 매복군을 대거 배치하여 거사를 감행하려고 계획했다. 열읍 군사들을 모두 모아 대규모 공격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에 수 백 명 군사를 매복시켜 분탕질하는 왜적을 덮칠 계획을 짰다. 다음은 복병을 통해 적의 후미를 급습하는 전략의 사례를 보여준다.

① 횡성(橫城)의 수령에게 부처 보낸 좌부장(左副將)의 서찰은 다음과 같다. 원주(原州)의 적이 이번 달 16일에 충주로 진을 옮길 때 횡성의 군사가 후미를 공격하여 2급(緋)을 참하였다.’ (계사년 2월 26일)

② 복병장(伏兵將) 김사권(金嗣權)이 정병 10명을 거느리고 상주(尙州)의 송현(松峴)에 매복하였다. 당교(唐橋)의 적이 내려갈 때 3명이 뒤쳐져서 정병들이 숲속에서 갑자기 돌격하니 적들이 물러나 숨었다. 김사동(金士同), 임 사걸(林士傑), 양수(良守) 등이 결박하여 순찰사에게 보내니, 군관(軍官) 등에게 명하여 사살하고 머리는 베어 저 장하고 보장(報狀)의 회송(回送)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흉적(匈賊)을 생포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였다. 분한 마음을 조금 씻을 수 있으니 더욱 가상하다. 특별히 상을 논의할 생각이며 상격공문(賞格公文)은 곧 성책하여 보내겠다.” (계사년 5월 2일)

복병을 미리 숨겨 두어 적을 급습하는 과정에서 적의 후미를 공략하는 전략도 실행되었다. 왜적이 원주에서 충주로 진을 이동할 때 횡성의 매복 부대가 후미를 급습하여 교란 작전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횡성의 매복 부대는 왜적을 2급 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주의 송현에서는 왜적 3명을 포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어 매복과 함께 야간 기습 공략으로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전략도 수행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진천뢰도 사용되었다. 이는 일명 ‘비격진천뢰’라고 한다. ‘향병일기’에는 진천뢰 사용에 대한 기사가 세 군데 있다.

① 복병장(伏兵將) 이선충(李選忠) 등이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어제 밤중에 적진에 돌입하여 무수히 사살하였으며 창검(槍鎗) 1자루를 빼앗고 다시 진천뢰(震天雷)를 투척하니 온 부대가 놀라 요동쳤으며 죽은 자가 얼마나 많은 지 알 수 없다. (계사년 1월 1일)



② 바람이 그쳤다. 대장은 매복처에 있었고 이선충 등은 경예한 군사를 이끌고 당교의 적진 목책을 부수고 15명 정도를 쏘아 죽인 후 그들의 장창을 탈취하였다. 또 연달아 진천뢰를 쏘았는데, 때는 밤인지라 주변이 어두워 얼 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계사년 1월 2일)

③ 적이 강을 넘어 분탕질을 자행하였다.....대장(김해)가 이선충으로 하여금 반암에 매복하게 하고.....적이 돌아 올 때에 급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공격했는데 먼저 진천뢰를 쏘아서 적군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왜장 한 명의 목을 베었다. 무수히 많은 적을 죽이고 그 귀를 베고 왜장의 비단 옷을 탈취하였다. (계사년 2월 24일)

당교 전투에서 실제 그런 전투성과를 이뤄내었다. 북병장으로 눈부신 역할을 수행한 이선충의 보고에 의하면, 야습으로 무수한 왜적을 참했고 창검도 탈취했다. 게다가 진천뢰를 투척하여 왜적을 혼비백산하게 한 뒤에 공격하여 무수한 적도를 사살했다는 보고이다. 전투에 투입된 진천뢰는 실제 가공할 만한 무기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2월 24일 전투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먼저 진천뢰를 발사하여 왜적을 혼란케 한 뒤, 급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써 왜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 무기로 그 효력이 입증되었던 바이다. 명나라 군대에서 수송한 화차와 대완구 역시 왜적 섬멸에 큰 공을 세웠던 것으로 기록된다.

① 순찰사(巡察使)에게 진천뢰(震天雷)를 요구하니 안동에 있는 것을 보내겠다고 한다. 진천뢰는 효력이 있어 적이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으니 매우 기뻐할 만하다. (계사년 1월 16일)

② 명나라 군대는 기계로 교전하는데, 선봉 3만 명은 각각 화차(火車)와 대완구(大碗口) 3개를 화차에 싣고 화차로 진을 이루니, 적은 손도 쓰지 못하고 기계만 보고도 무너지니 며칠 내에 경성을 함락할 것이다. (계사년 2월 9일)

이와 같이 항병들은 여러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하고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일신상의 안전과 목숨은 초개처럼 버리고 오직 멸사봉공의 자세로 헌신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는 용사가 기록된다.

## 7. 수훈 용사와 순국 인물의 선양

왜적들의 만행에 대응하여 의병들의 살신성인 행동은 어육이 되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강토를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구나 완벽한 군장비 체제도 없는 의병진에서 왜적을 베고 공을 세우는 일은 특기할 만하다. 먼저 개인적인 수훈의 사례를 정리한다.

① 부계(缶溪) 정제장(整齊將) 강충립(康忠立)이 홍몽뢰(洪夢藪)가 목 베어 왜적 머리 1급(級)을 바치자 즉시 대장 이 있는 곳으로 보냈다. (계사년 2월 2일)

② 예안의 이일도(李逸道)가 종을 거느리고 왜적의 머리 1급(級)을 진소(陣所)에 바쳤다. 즉시 순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계사년 2월 9일)

③ 권태정(權太丁)이 벤 왜적의 머리와 권산(權山)이 빼앗은 비단 적삼을 순찰사(巡察使)에게 바쳤다. (계사년 3월 23일)

④ 백성 최수영(崔守榮·승려 축담(竺潭)이 참획한 왜적 머리 1과(顆)를 순찰사(巡察使)에게 보고하였다. (계사년 3월 20일)

⑤ 군위 항병(軍威鄉兵) 교생(校生) 기대립(奇大立)과 강경서(姜慶瑞) 등이 인등에서 매복하여 각각 왜적 1명을 사살하였으며, 기대립은 참획한 머리를 와서 바쳐서 즉시 순찰사(巡察使)에게 보고하였다. (임진년 12월 27일)

⑥ 북병한 장수와 사졸들이 참획한 왜적 2급(二級), 빼앗은 검 2자루, 소 8마리, 말 1필을 바쳤다. (계사년 4월 23일)

⑦ 경주 판관(慶州判官)의 치보(馳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월 10일 올라오던 왜적 2000여 기병을 파잠현(把 峯峴)까지 추격하여 20여 급을 참획하고 수 많은 적을 사살하였으며 화물 20여 수레를 탈취하였다." (계사년 3월 17일)

①에서 수훈자는 홍몽뢰이다. 왜적의 목을 베어 부계 정제장 강충립이 대장 진영으로 보낸 것이다. ②에서는 이일도가 종을 거느리고 왜적의 머리 1급을 베어 기사이다. 왜적 퇴치 과정에서 노비도 일익을 담당한 사례를 보여준다. ③에서는 권태정은 벤 왜구의 수급과 권산이 탈취한 적삼을 바쳤다. ④는 최수영이 참획한 왜구 수급을 바친 경우이다. 최수영은 승려로 전공을 세웠다. 신분을 초월하여 국난 극복 대열에 합류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공을 세웠던 점을 파악할 수 있다.

⑤는 향병 기대립과 강경서 등이 매복을 하다가 적을 급습하여 전공을 올린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향병의 역할과 매복 근무, 급습 등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⑥도 북병의 전과를 기록한 것인데, 성과가 우수하다. 왜적 2급, 검 2 자루, 소 8마리, 말 1필이다. 매복 전술의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⑦의 전투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경주 판관의 치보 내용인데, 왜적 20여 급 참획과 화물 20여 수레를 탈취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수훈을 통해 왜적의 보급로 차단 및 백성들의 피해 최소화 및 관민의 우위 선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어 왜적 퇴치 및 참획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한 내용을 보기로 하자.

① 북병 정군(伏兵精軍) 권태정(權太丁), 권산(權山) 등이 대장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헤아려 적진에 뛰어들어 각각 1급(級)을 베었으나 많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 권태정은 겨우 왜적의 머리를 가지고 단검으로 탈출하였으나 권산은 머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왜적의 옷만 끌고 나왔다. 겨우 죽음만 면하였으니 탄식할 뿐이다. 그러나 돌진하여 왜적의 머리를 베었고 또 추격하는 왜적을 사살하였으니 그 공로가 권태정보다 못하지 않다. (계사년 2월 18일)

② 낮에 대장의 전령(傳令)이 도착하였다. 북병장(伏兵將)이 돌아가지 않고 머무르기를 위하여 식량과 말의 사료를 더 보내었다고 한다. 북병장이 정병 10명을 뽑아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임사결(林士傑)은 왜적 2명을 사살하고 1명을 목 베었으며, 윤문(胤文)은 1명을 사살하고 목 베었으며 그들의 장창(長鎗)을 빼앗았다. 적의 포위가 급박하여 사결과 윤문은 목 베고 그들의 수급과 장창을 버리고 겨우 몸만 적진에서 탈출하였다. 적의 피가 옷소매에 흘러내렸다. 적의 포위망 밖에 있던 다른 정병들은 크게 고함을 지르며 활을 난사하여 윤문의 오른쪽 팔에 잘못 맞았으나 적도 놀라고 흩어져 모든 군사가 온전히 돌아왔다. (계사년 2월 1일)

①은 권태정과 권산의 왜적 퇴각 현장을 기록한 것이다. 북병 정예병인 권태정과 권산이 적진으로 뛰어들어 왜적의 머리 2급을 베었지만 포위를 당했다. 권태정은 그 와중에 왜적의 머리를 꺼안고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권산은 머리를 들고 오지 못하고 왜적의 옷만 들고 몸을 빠져나왔다. 권산이 왜진으로 돌격하여 왜적의 머리를 베고 추격하는 왜적도 사살한 공로가 권태정에 비해 뒤질 바 없다고 하였다. ②는 북병장 임사결의 용맹을 기록한 것이다. 임사결은 정병 10명을 특공대로 편제하여 기습전을 펼쳤다. 임사결은 왜적 2명을 사살하고 1명의 목을 베었으며, 윤문은 1명을 사살하여 목을 베고 장창을 탈취했다. 왜적의 포위가 좁혀지자, 사결과 윤문은 왜적의 수급과 창을 포기하고 몸만 빼내어왔다. 이에 아군이 엄호하는 화살을 난사하여 왜적의 추격을 차단하여 사결과 윤문을 무사히 탈출시켰다. 전투 시리즈를 시청하는 것처럼 전투 현상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권응수의 용맹담이다.

권응수(權應銖)가 영천(永川)을 수복하고 왜구 300여 명을 목 베었으며 불타고 짓밟혀죽은 자를 셀 수 없었다. 왜구가 경주(慶州)에서 영천까지 군사를 머물러두고 의성(義城)과 군위(軍威) 등의 읍을 왕래하는 길로 삼고 또 서로 호응하니 경상좌도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거주할 수가 없었다. 영천이 수복된 뒤로는 의성과 군위의 왜구가 앞뒤가 단절되어 발을 붙일 곳이 없어져 즉시 철군하여 물러갔다. 이로부터 당교(唐橋) · 상주(尙州) · 선산(善山) · 인동(仁洞) · 대구(大丘) 등에 머물던 왜구는 위로는 문경과 접하고 아래로는 경주까지 이어져 통행하는 길로 삼으니, 본도의 10여 읍의 백성들은 비로소 조금 안정되었다. 그 뒤 원수(元帥) 권율(權擥) · 원문(胤文) · 전라 순찰사(全羅巡察使) · 원문(胤文) · 권응수의 공은 절로 속일 수가 없다. 권응수는 권세나 부귀에 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함하는 사람이 많아 장계도 수용되지 못하고 군사를 거두니 애석하다. (임진년 7월 19일)

대장의 행차가 풍산에 이르러 진천뢰(震天雷)를 가지고 갔다. (대장이 북병의 일을 살피려 용궁으로 출발할 때이다.) 영리(營吏)가 전해 준 통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 달 23일 우후(虞侯) 권응수(權應銖)가 정병 40명을 거느리고 비안(比安)에서 인동(仁洞)으로 갔다. 왜적의 형세를 엿보아 왜적과 내통한 중과 속인 8명을 사살하고, 남자 20명 여자 1명을 사로잡아 즉시 목 베어 죽이고, 지세(地勢)가 불리하여 크게 싸울 수가 없었다." (임진년 12월 27일)

권응수의 혁혁한 전공을 소개하고 있다. 첫째 예문에서 권응수는 영천 지역을 수복하면서 왜적 300여 명을 목 베고 이외에 참획한 것이 무수히 많다고 하였다. 왜구들은 영천을 근거지로 삼아 경주에서부터 영천 일대에 왜적을 주둔시켜 의성과 군위로 통하는 길로 삼아 경상좌도는 농들의 만행에 의해 쑥대밭이 된 형편이었다. 그런데 권응수가 영천을 수복한 이후, 의성과 군위의 왜구는 고립되어 즉시 철군했다. 그런 점에서 권응수의 전공은 매우 탁월한 것이다. 하지만 당교에서 대구에 걸쳐 남아 있는 왜구들이 여전히 날뛰는 현실은 어쩔 수 없었다. 이와 함께 권응수를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 그의 전공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해 애석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권응수가 왜적과 내통한 자 8명을 사살하고 남녀 20여 명을 사로잡아 참수했던 과정을 기록했다. 다음은 이선충의 용맹스러운 전투담을 기록한 것이다.

노포에 진을 머무르게 하였다. 우부장과 아침에 용궁 현감(龍宮縣監)을 만나 도지휘대장(都指揮大將)의 진(陣)으로 갔다. 길에서 왜구가 현의 서쪽에 돌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본진으로 돌아왔다. 왜구의 선봉(先鋒)이 이미 교동(校洞)에 들어왔으나 북병장 이선충이 말을 달려 추격하여 용궁 사람들이 화를 면하였다. 계원장(繼援將) 우선경(禹善慶)이 정병 50명을 거느리고 석현의 진으로 달려갔다. (임진년 10월 26일)



왜구가 현의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한 이선충은 말을 달려 그들을 추격하여 내쫓음으로써 용궁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선충의 맹활약은 이어지는 예문에 잘 기록되어 있다.

군인 복량(福良)이 병이 들어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로 북병장의 첩정이 도착하였다. 저녁에 북병장 이선충이 반 암 가에 오니, 매복 중이던 한금(韓金) 등이 풀을 베고 있던 왜적 100여 명과 전투가 벌어졌다. 왜장(倭將)은 진 중에서 백마를 타고 많은 정병을 거느리고 나와 계속 새그물을 치듯 도와주었다. 왜적 50명은 각각 철환(鐵丸)을 가지고 도담(道潭) 앞 기슭에서 사냥을 하다가 회군하는 우리 군사를 에워쌌다. 정병들은 이리저리 뛰면서 그들의 정신을 빼앗고 혹은 풀을 흩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다가 거의 잡힐 뻔 하다가 겨우 살아났다. 왜적들은 추격하여 도담까지 왔다가 물러갔다. 정병 한금 등은 그들의 목을 베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각자 서산(西山)의 왜적의 진지 가까운 쪽에 매복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위로하고 회유하여 돌려보냈다고 이선충이 말하였다. 신선(信仙) 등 5명이 왜구 1명을 목 베어 왔다. 신선 등은 왜동( 왜洞)에 매복하였는데, 왜적 10여명이 우마 3필을 가지고 와 회계산사(會稽山寺)에서 딸감을 하자 길에서 요격하였다. 왜적들이 놀라 흩어지자 축담(竺潭)이 활을 쏘아 2명을 맞히고 그의 검을 빼앗고 머리를 베었다. 왜적들이 모여서 구원하려 오자 신선 등이 힘을 다해 방어하여 겨우 왜적의 머리를 가지고 도망하였다. 왜적들이 추격을 멈추지 않자 축담은 머리를 풀밭에 버리고 달아나고 왜적이 진으로 돌아간 뒤에 다시 그 머리를 가지고 와서 바쳤다. (계사년 2월 22일)

북병장 이선충과 매복 중이던 한금이 풀을 베고 있던 왜적 100여 명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왜장은 백마를 타고 그물을 던져 이들을 생포하려고 하였으며, 도담 앞에서 사냥하던 왜적 50명이 합세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다. 당시 왜적은 초충을 휴대하였기에 위기에 직면한 정병들은 이리저리 뛰면서 그들의 정신을 교란시켰다. 겹싸게 후퇴하여 도담까지 왔는데 왜적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아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한금 등은 왜적의 목을 베지 못해 분하게 여겨 왜적 진지 가까운 곳에 다시 매복하길 자원했다. 이내 신선 등이 왜적의 머리 1급을 베어 왔다. 딸감을 하러 온 왜적을 덮쳐 2명을 사살하고 머리 한 급을 베어 온 것이다. 이어 사룡의 활약을 보기로 한다.

① 어떤 사람이 대장이 있는 곳에서 와서 말하였다. "정병 사룡(士龍), 한금(韓金) 등이 상주의 길에 매복하여 각각 목 베 2급을 바쳤다." (계사년 2월 2일)

② 매복군 사룡(士龍) 등이 병사를 거두어 돌아와 왜적의 머리 3급을 바쳤다. 매복한 절차를 물으니, "7일부터 9일까지 연일 매복하여 쓰러뜨리고 죽인 자는 많으나 목은 베지 못하였으며, 10일은 함창(咸昌)의 고산(孤山)에 매복하여 당교(唐橋)의 적이 금곡리(金谷里)를 노략질과 분탕질하고 진으로 돌아갈 때 느닷없이 급습하여 사룡 1급, 양수(梁守) 1급, 산해(山海) 1급을 목 베었으며, 의석(義石)과 사동(士同) 등은 각각 왜적의 말 1필씩을 탈취하였으며, (계사년 4월 12일)

③ 장서(掌書) 김강(金綱)이 돌아갔다. 북병군 사룡(士龍) · 권산(權山) 등이 참획한 왜적 2급(二級)을 가지고 와 대장에게 바쳤다. 대장이 진으로 보내고 즉시 순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서행일기(西行日記)』의 내용을 부기(附記)한다. 송원(松院)의 매복군 김한원(金漢原) 등 9명이 왔다. 9명이 각각 왜적 1명을 쏘아 맞히고, 사룡과 권산은 각 1명을 참하였다. 장하고 통쾌하다. 오후에 대장이 풍산(豊山) 이 좌랑(李佐郎)의 집으로 돌아왔다. (계사년 3월 26일)

④ 순찰사가 헌곡(獻職)에 대한 회송(回送)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헌곡한 적의 머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마땅히 본도의 의병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룡(士龍)과 양수(梁守)는 더욱 가상하니 증미(蒸米) 3말과 군공(軍功) 공문을 아울러 보내어 특별히 포상하는 뜻을 보인다." (계사년 4월 18일)

①은 정병 사룡과 한금이 상주 길에서 매복해 있다가 각각 왜적의 머리 1급씩 벤 전공을 기록한 것이다. ②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매복해 있다가 왜적을 급습해 많은 수를 사살했지만 목은 베지 못했다고 한다. 10일에 이르러 당교에 주둔하던 왜적이 금곡리를 노략질하고 분탕질해 오던 것을 급습하여 사룡, 양수, 산해가 각각 왜적 1급씩 벤 것이다. 의석과 사동도 각각 왜적의 말 1필씩 탈취하였다. ③은 북병 사룡과 권산이 왜적을 각각 1급씩 참획한 전공을 기록하였다. '장하고 통쾌하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그들의 통쾌한 전과를 칭찬하였다. ④는 경상도에서 왜적을 참획한 전공이 으뜸임을 강조하였다. 그 가운데 사룡과 양수의 공이 지대하여 증미 3말과 공문을 보내 특별히 포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선 의병들의 맹활약에 대해 명나라 군사들과 장수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명나라 군사 권울(權鵬)의 전장(戰場)에서 적의 시체가 산같이 쌓여있음을 보고 칭찬하고 탄복함을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계사년 3월 11일)

듣건대, '고언백(高彦伯)이 참획한 왜적 만 여급(級)을 명나라 장수에게 바쳤다.' 명나라 장수는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朝鮮)에도 장부(丈夫)가 있구나!'하며 함께 합세하자고 하였다. 이는 권득가(權得可)가 성량(成亮)에게 들었다. (계사년 3월 13일)

권울 장군의 행주산성 대첩을 말하는 것 같다. 권울 장군의 전과를 보고 명나라 군사들이 탄복을 그치지 않았던 점을 기록했다. 이어 고언백이 참획한 왜적 만 여급을 명나라 장수에게 바치자, 명나라 장수가 '조선에도 장부가 있구나!'라는 감탄을 하였던 사적을 기록했다. 이처럼 용기가 있고 담대한 의병들의 맹활약과 악전고투의 결과가 임진왜란을 앞당겨 종식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전투 과정에서 순절의 영웅도 기록되기 마련이다.

임란은 무수한 인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평화와 백성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왜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영웅에 대한 기록을 보기로 한다. 먼저 동래부사 송상현의 순절은 왜구들을 숙연케

하였다.

듣건대, 동래 부사(東萊府使) 송상현(宋象賢)이 난리 초기에 성이 함락되는 날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외로운 성엔 달무리 지고 큰 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군신의 의리는 무겁고 부자의 은혜는 가볍습니다.[孤城月暈 大陣不救 君臣義重 父子恩輕] 마침내 관복과 띠를 차고 의자에 앉아 머리를 내어주면서도 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진년 9월 5일)

동래부사 송상현이 동래성이 함락되던 날에 부모님에게 올린 편지 글을 소개하였다. 외로운 성에 달무리 지는 밤에 도저히 왜적을 막아낼 도리가 없고 원군도 기대할 수 없기에 군신의 의리가 부자의 의리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순국을 결심하게 된다는 비장한 결의를 담고 있다. 왜적이 동래성을 함락시키고 송상현을 찾았을 때 그는 관복을 입고 띠를 두른 채 깨끗하게 앉아 머리를 내주면서도 전혀 비굴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장부답게 깨끗하게 순절하여 의리를 표상한 송상현에 대한 입전 형식의 기록을 통해 의병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① 손억문(孫億文)은 적의 목을 벨 때 탄환에 맞아 즉사하였다." 고 하니 애석하다. (계사년 4월 12일)

② 왜구가 충주(忠州)를 함락시켰다. 도원수(都元帥) 신립(申瑰)과 종사관(從事官) 김어물(金汝喆)이 패하여 전사하였다. (임진년 4월 28일)

③ 권을생(權乙生) · 김한경(金漢景) 등 6명과 성주 별비장군(城主別牌軍) 10여 명이 합세하여 반암(盤巖)에 매복하여 왜적 6명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먼 곳에서 왜적 7명이 구원하려 와 아군은 겨우 죽음을 면하였으나 별비군 1명은 적에게 죽었다. (계사년 2월 23일)

①은 손억문이 왜적의 목을 베다가 적이 쓴 총에 맞아 즉사한 순직을 기록한 것이다. ②는 왜구가 충주를 함락시킬 때, 도원수 신립과 종사관 김어물이 패전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것을 간명하게 기록했다. ③은 권을생과 김한경 등 6명이 성주 별비장군 10여 명과 반암에서 연합 전선을 구축해 왜적과 접전을 벌이는데 멀리서부터 왜적 7명의 원병이 달려와 응수하는 바람에 퇴각했는데 별비군 1명이 전사한 기록이다. 다음은 군위별장 장사진의 장렬한 순국 기록이다.

군위 별장(軍威別將) 장사진(張士珍)이 전사하였다. 장사진은 현(縣)의 선비로 날쌔고 강건하며 담력과 지모가 있었다. 왜구가 남쪽의 읍들을 노렸으나 요해처에 의거하여 잘 막고 끊어서 남방이 보장될 수 있었다. 하루는 왜구 1000여 명이 현의 경계에 침범하였을 때, 장사진은 정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돌진하여 비단 옷과 은색 투구를 쓴 자를 먼저 쏘고 머리를 베어 창에 걸었더니 왜군의 온 부대가 크게 혼란하고 울부짖으며 도망 갔다. 승세를 타고 쏘고 추격하여 수백 명을 참살하였다. 10여일 뒤에 왜구가 휩쓸듯이 많은 무리로 다시 왔다. 장사진은 죽음을 각오하고 힘껏 싸우다 죽었다. 적 또한 몰려갔다. (임진년 11월 12일)

장사진의 전사 현장을 문면에 담았다. 그는 평소 날쌔고 강건하며 담력과 지모가 특출한 장수였다고 소개하였다. 왜구들이 남쪽의 여러 성읍을 노렸지만 그는 요해처를 수비하고 왜적의 주요 노선을 차단하여 남쪽 고을이 안정을 찾도록 했다. 하루는 왜구 천 여 명이 현을 습격하자, 그는 정병 수십 명을 이끌고 출정하여 왜장을 맨 먼저 쏘고 목을 베어 창에 걸어 왜적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왜장을 먼저 죽임으로써 적의 전열을 흩어 전투 의지를 좌절시킨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에 그는 그들을 추격하여 수백 명을 참살시키는 큰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0여 일 뒤에 왜적이 대대적으로 몰려오자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과 싸우다가 장렬한 순국을 하였다.

## 8. 당교 전투 참여와 의의

당시 안동 의병들이 왜군과 크게 항쟁했던 곳은 지금 문경시 남쪽에 인접하고 있던 당교였다. 이곳은 당시 경상좌우도가 분기하는 지점으로 교통의 요지이고 아울러 천혜의 전략 요새지인 조령이 가까이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여기에 왜군 일부가 남아 있으면서 원활한 군수품 보급과 전후방을 연결하는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에 당시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좌도여러 고을에서는 당교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을 소탕하는 일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였다.

당시 당교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은 장기전을 시도하면서 방어 시설 구축에 주력하여 목책 등을 축조하고 있었다. 이로써 우리 측의 공격에 대응하는 동시에 그 인근 지방에 대한 침탈을 계속하였다. 왜군이 당교에서 오래 버티고 있었던 것은 그 곳이 전략상 중요하기도 했겠지만 견고한 방어 시설도 보탬이 되었다. 그들은 당교를 거점으로 그 부근 각지에 수시로 침탈을 자행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고 물자를 조달했던 것이다.

당교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당교의 왜적을 물리치는 일은 영남 좌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첩경이며 충청권과 경기 일대를 연결하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왜구를 격퇴시키는 일이야말로 매우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당시 당교는 왜군들이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란 초기 수도 한양으로 진군했을 때

일부의 병력은 여기에 잔류시켜 일정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 뒤 명나라 군사의 내원과 조선 측의 대응 강화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들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도 병력의 일부를 당교에 남겨두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당시 안동 의병들은 당교로 출전하기 위하여 임진년(1592) 10월 22일 안동부의 서쪽에 위치한 풍산에 집결해 서진을 계속해, 이튿날 예천군 진지에 도착하였다. 전열을 정비해 행군을 재촉하여 10월 25일에 용궁 고을에 이르렀으며 이를 뒤 10월 27일에는 북병 장수 이선충과 조전장수 박호인이 함께 용맹스럽게 싸울 정병을 데리고 당교 근처 반암으로 잠입했다.

당교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들은 임진년 11월 중순까지는 주변지역에 대한 그들의 행패가 더욱 심하였으므로 경상좌도 순찰사는 의병과 관군의 지휘자들로 하여금 왜적이 자주 출몰하던 예천지방에 그대로 머물면서 왜적에 대응하게 하였다. 이런 조치와 더불어 인근 고을인 영주·봉화·예안·풍기 지방에서 선발한 정예 군사들을 안동에 모아서 군마와 함께 풍산으로 보내어 진을 치고 대응하게 함으로써 당교 왜적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어 11월 24일에 북병장수 김사권이 정예병을 뽑아 이들을 거느리고 당교가 있는 함창으로 진격했다. 그 사이 반암에 머물던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적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면서 작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이다.

12월 17일에는 대장과 우부장이 각 지역 지휘자들과 함께 왜군을 공격할 작전 계획을 짜기 위해 협의하였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2월 26일에는 북병장 이선충이 선발한 정예군병 30명을 인솔하여 용궁으로 진격하였다. 이런 점에 당시 안동 의병 진영은 군사적 측면에서 왜군에 비해 열세였기 때문에 그들과 정전은 무리가 따르므로 매복과 기습 공격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임진년 12월 28일 안동지방 의병지휘대장 일행들은 용궁을 거쳐 왕태 마을 서쪽에 있는 산위에 올라가 멀리 진을 치고 있는 왜군들의 형세를 바라보면서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당교를 근거로 하는 왜적의 만행 기사는 다음과 같다.

① 부사 배리(府使陪吏) 권의(權翊)의 고목(告目)은 다음과 같다. “당교(唐橋)의 적이 예천군의 서당동리(西堂洞里)를 분탕질하였다.” (계사년 1월 4일)

② 예천(醴泉)의 치보(馳報)에 의하면, ‘당교(唐橋)의 왜적이 갈평(葛坪)을 무수히 분탕질했다.’ 고 한다. (계사년 1월 20일)

③ 당교(唐橋)의 적이 분탕질한 피해가 작년보다는 적은 것은, 아마 왜적의 정병들이 모두 경성(京城)에서 명나라 군대를 대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사년 2월 26일)

④ 여천(呂泉:예천)의 전통(傳通)은 다음과 같다. “6일 당교(唐橋)의 적이 용궁(龍宮)을 침범하여 포위하고 여러 번 분탕질하여 사람을 죽이고 해쳤다.” 고 한다. 매우 참혹하다. (계사년 3월 7일)

⑤ 전하는 말에, “당교(唐橋)의 왜적이 예천(醴泉)의 유천(柳川)을 분탕질하였다.”고 한다. (계사년 3월 16일)

⑥ 이날 당교(唐橋)에 주둔한 적이 많이 나와 새벽에 유천(柳川)과 노포(蘆浦) 등을 습격하여 거의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약탈하였다. (계사년 3월 22일)

①은 서당동리에 분탕질한 사례를 기록한 것이다. 왜적은 군량와 군비 조달을 현지 백성들을 약탈하고 살육을 자행하며 수탈함으로써 해결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왜적들의 만행은 극에 달한다. 인명 살상, 가축 및 식량 약탈, 방화, 강간, 납치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②는 갈평 지역이 무수히 분탕질당한 내력을 보고한 것이다. ③에서 당시 당교의 왜적 분탕질이 주춤한 것은 왜적의 정병이 경성에서 명나라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④는 용궁을 침탈한 현장을 보고한 것인데, 피해 상황이 참혹하다고 했다.

⑤는 예천의 유천 일대가 왜적에 의해 분탕질 당했다는 기록이다. ⑥은 유천과 노포 등지를 침탈한 정황을 보고한 것으로, 인명을 죄다 살상하고 가축은 모조리 수탈해 간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왜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그 여파가 영남과 충청 및 경기까지 밀려오기 때문에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병진이 출진하여 이들을 방어해야만 하는 당위에 놓인 것이다. 다음 내용은 예안 향병이 당교에 도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상황이 딱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안동(安東)과 예안(禮安) 향병은 이미 당교(唐橋)로 나갔다. 의성(義城) 아래 4읍의 군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뿔뿔이 흩어지고 수백 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당교로 전령을 보내었다. 부장(副將)에게 정병(精兵)을 거느리고 밤에 당교의 적을 야간 습격하고 돌아오도록 하였으나 피곤함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오지 않았다. (계사년 1월 6일)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막상 당교에 도착하였지만 전면전을 펼칠 수 없었기에 인근 지역인 용궁을 방어하여 대비를 강구하는 것이다. 정비된 군사 체제와 군장을 갖춘 왜적을 무작정 전면전으로 대항하기에 의병들은 모든 면에서 열세였다. 오직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충의 정신으로 무장된 의병이기에 전면전 보다는 후방 교란과 북병을 통한

기습 공격 등으로 왜적을 교란시키고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일단 왜적이 안동 등지로 밀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궁에 진지를 구축하고 왜적과 대치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좌도 순찰사(左道巡察使)에게 보낸 관문(關文)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요즈음 도내의 적의 형세를 한결같이 보고하지 않는다. 우도(右道)는 호남(湖南)의 의병과 합세하여 적을 섬멸하나, 좌도(左道)는 관군과 의병이 하나로 합치되지 않아 형세가 외롭고 약하고 또 조처할 대책도 없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모름지기 정예병을 가려 뽑아 곳곳에 매복하여 적의 머리와 꼬리를 단절시킨다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 당교(唐橋)의 적이 예전처럼 왕성하게 날뛰니 부득이하게 용궁(籠宮)에서 방어 시설을 하여 굳게 지키며 각별히 자세히 살피서 거행할 것이며, 일을 잘 아는 영리(營吏)가 임무를 맡아 군관을 데리고 각 관창(官倉)의 곡식의 수와 관군과 의병을 누가 거느리며 어느 곳에 매복하는 지와 군인의 많 적음을 아울러 상세히 첩보할 것.” (계사년 4월 13일)

관문의 내용을 참고하면, 적의 형세 보고도 지체되고 영남 좌우도 의병들의 융화가 어려워 왜적 퇴치에 어려운 국면을 맞는다고 하였다. 영남 우도 의병이 호남 의병과 합세하여 왜적 퇴치에 있어 모범을 보이는 점을 칭송하였다. 전면전은 유보하고 매복군을 두어 기습 공략을 함으로써 치명타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용궁 지역을 방어하여 왜적의 확산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번암과 당교에 매복 작전은 다음 기록에서 확인된다.

도사(都事) 김창원(金昌遠)이 진으로 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 ○ 안동 이방(安東吏房)의 고목(告目)은 다음과 같다. “조방장(助防將:權應鍊)이다. 이 번암(盤巖)과 당교(唐橋) 등의 장소에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매복을 하였는데, 왜적 300여 명이 산을 덮듯이 추격하여 왔다. 포위를 당한 채 접전하여 많이 사살하였으나 왜적들이 후퇴한 뒤 여러 산에 불을 질러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계사년 2월 22일)

대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나라 장수의 자문에서 권면함이 격렬하고 우리 임금의 교서도 효유함이 간곡 한데, 장수가 되어 편안히 본진에 앉아있으니 매우 미안하다. 속히 의성(義城) 등의 지역으로 나가 매복한 곳을 살펴보고 전투를 독려하겠다.” 장서(掌書) 김윤안(金允安) · 정제장(整齊將) 김약(金濶) 등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도(下道)에 매복하는 일은 별장(別將)을 정하여 나아가게 하여도 감당할 수 있으며, 대장은 본진(本陣)에서 절제(節制)하는 것도 잘못된 계획이 아닌데, 하필 몸소 항오(行伍)에 들어가 뒤라야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또 요즈음 대장의 순시가 빈번하여 왕래하는 동안에 군량을 소비하였으니 이번에는 한번 행차를 그만두는 것이 어떠합니까?” 대장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당교(唐橋)에서 매복하는 일은 우부장이 이미 주관하니, 하도에서 매복하는 일은 좌부장이 순시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겠다.” (계사년 2월 12일)

의병들은 왜군의 일부가 당교 본진을 벗어나 인근에 있는 주요 지방을 침공하고자 할 때 그들보다 지리에 밝았으므로 왜군들이 경유할 지점에 미리 우리 측 의병 가운데 정예군을 뽑아 복병장 책임 아래 매복시켜 놓았다. 이렇게 매복된 의병들로 하여금 왜군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피해를 안겨 주었는데 매복된 병사가 부족할 때는 후원병까지 파견하여 이들을 돕게 하였다. 그래서 왜적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거나 분탕질할 경우는 정면충돌을 자제하고 우리 측 진지에 머물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의병은 군사적 면에서는 왜군보다 여러 가지로 열세에 놓였기 때문에 정면충돌해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를 피했는데, 열세의 병력으로 효과적 전과를 올리자면 어쩔 수 없는 전술이었다. 안동 열읍 의병들의 당교 지역 전투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격 형태는 한 밤중에 선발된 정예 병사들로 하여금 잠자고 있던 왜군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이다. 당교 왜적의 야간 기습 공격 전과이다.

대장이 매복처에서 병사를 철수하여 돌아왔다. 복병 별장(伏兵別將) 이선충(李選忠) 등이 정병 사룡(士龍) 등 10여 명을 데리고 지난달 29일 ...원문 빠짐... 밤에 당교의 적진을 공격하여 15여 명을 사살하고 장창(長槍) 1 자루를 탈취하고 또 진천뢰(震天雷)를 발포하였다. 밤이 어두워 사상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폭발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왜적의 소굴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순찰사(巡察使)에게 갖추어 보고하였다. (순찰사에게 보고 한 글은 『서행일기』에 보인다.) 또 병사(兵使)에게 보고하고 진천뢰를 요청하였다. (계사년 1월 2일)

병마사(兵馬使)의 회소(回送)는 다음과 같다. ‘임사걸(林士傑) 등의 계문(啓聞)을 살펴보니, ‘진천뢰(震天雷)가 지 금 다른 곳에 있으므로 탄환을 수송할 일.’을 말하였다.’ (이보다 이를 앞서 당교를 야격(夜擊)한 절차를 날밤이 보고할 때 진천뢰의 효과를 첩보하였기 때문에 말한 것이다) (계사년 1월 8일)

야습의 효과는 매우 컸다. 복병장 이선충이 정사룡 등 정예병 10여 명을 거느리고 당교의 왜적을 습격하여 15여 명을 사살하고 장창을 탈취했다. 진천뢰를 발포하여 무수한 사상자를 내게 했고 왜적의 소굴을 궤멸시키도록 공격했다.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 한 밤중을 선택하여 정예 병사들로 기습 공격함으로써 그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무기까지 노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날의 승리에 자신을 얻었는지 그 다음 날에도 당교 왜적에 대한 우리 측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 때 의병장은 우리 측 의병들이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복병장 이선충 등으로 하여금 다시 정병을 이끌고 당교에 있는 왜군 진영의 목책을 파괴하도록 지시하여 적병 다수를 쏘아 죽이고 무기도 많이 탈취했다. 이 전투에도 진천뢰를 많이 발사했는데 밤이 어두워 정확한 사상자 수는 알 수 없었지만 적진에서는 비명소리 및 신음하는 소리와 함께 진

천뢰가 터지는 우리 같은 굉음이 번갈아 들릴 뿐이었다고 한다. 당시 진천뢰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진천뢰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당시 전과에 대한 다음 기록을 보면 많은 적을 사살했고 전과도 상당히 우수했던 점이 입증된다. 당교(唐橋)를 밤에 습격하여 많이 사살하였다. 사결(士傑)과 윤문(胤文)이 참획한 적의 머리와 함창(咸昌)에서 매복할 때 사룡과 한금(韓金) 등이 참획한 왜적의 머리를 순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순찰사는 이날 안동에 있으면서 회송(回送)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상격 공문(賞格公文)을 작성하여 보내니 해당자에게 직접 주고 첩보 하라." ○ 의흥(義興)의 교생(校生) 홍몽뢰(洪夢叢)가 참획한 왜적의 머리를 순찰사에게 보고하니, 이날 안동에 있으면서 회송하여 말하였다. "상격 공문을 작성하여 보내겠다." (계사년 2월 6일)

이처럼 향병은 매복을 통한 기습 공격 및 진천뢰를 동원한 공격 등으로 적의 허술한 틈새를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하여 많은 전투성과를 이루었다. 척후병으로 하여금 미리 왜군의 규모를 파악하게 한 다음 매복 병력을 투입하였고, 주변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응원군도 대기시켰다. 당교의 왜군 본진을 공격할 때는 대부분 야간에 화기를 사용하거나 창과 칼로 그들을 살상하였다. 진천뢰는 당교 왜적을 무찌르는데 있어 큰 역할을 수행했다.

아무튼 경상 좌도 의병들의 애항심과 애국심으로 뭉쳐 당교에 주둔하던 왜적에 대한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병력과 무기 측면에서 왜군에 비하여 열세였지만 게릴라전과 지리에 밝은 이점을 이용하여 왜적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안동 지방 의병들이 다른 지방 의병들과 두드러진 차이점은 관군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서로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 공조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진영 사이의 대립적 추세와는 서로 다른 현상이다. 이는 이 고장 출신으로 관군과 의병 사이의 조화와 협조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김성일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경상좌도 북부에서는 관군과 의병이 왜군과의 전투에서 서로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쌍방이 서로 상대편 지휘자의 통솔에 따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양군 지휘자들이 서로 모여 군사상의 문제를 협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이 같은 조치와 더불어 경상도 병마사가 이곳으로 달려오고 안집사는 별도로 군마를 차출하여 감천 일대에 진을 치자 영주 고을 의병들도 이에 호응하여 진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주위에 우리 측 군대가 포진하게 되자 안동 열읍 의병 대장은 그 산하 각 고을 군사와 안동의 관군과 함께 서로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결진하여 당교의 왜군과 대응하게 되었다. 그러한 작전으로 상당한 성과를 얻어 안동 일대에는 왜군이 재차 침공하기가 어려웠다. 이로써 당교에 주둔했던 왜군들은 영남 북부 지방 인접 고을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이는 타 고장에서는 대부분 각 고을 의병장 중심으로 단독 전투가 수행된 것과 비교한다면 하나의 두드러진 성격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당교 일대가 차지하고 있는 군사적 비중은 그 뒤에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졌다. 단적인 사례는 19세기 말엽에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또 다시 조선을 침탈하면서 각 지방에 주둔하여 많은 피해를 안겨 주었다. 이 때 당교 인근인 함창 태봉에도 일단의 일본군이 주둔하게 되자 김도화가 인솔하는 안동 지방의 의병들이 그곳을 공격했던 것이다. 안동은 이와 같이 당시 영남 북부지방의 중추적 고을로서 부과된 군사적 임무를 잘 수행하여 당교 주둔 왜군을 격퇴함으로써 임란 극복에 공헌했다. 이러한 당교 전투에서 향병들의 활약을 상세하게 다룬 기록이 바로 근시재의 □향병일기□라는 점에서 이 책은 귀중한 문화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 9. 맺음말

근시재는 39세의 젊은 생애를 살면서 퇴계의 학문을 사숙하고 가학을 통해 성리 철학의 진수를 익혔다. 그는 다방면의 학문에서 출중한 역량을 보였으며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별시에 급제하여 명망이 자자했지만 세상 영리에 초연했으며 강인하고 지조 있는 선비의 전형을 갖췄다.

임란이 발발하여 왜적이 창궐하고 임금도 몽진하게 되자, 그는 눈물을 흘리고 하늘에 맹세하며 의병을 일으켜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에 이정백과 배용길을 좌우부장으로 삼아 안동에 군영을 설치하고 예천에 주둔한 적도를 압박하고 오랑캐를 생포하여 관찰사에게 바쳤다.

안동의 선비들은 굳센 선비 정신과 애항심 및 애국 의리가 합치되어 의병 활동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 배후에는 초우사로 활약했던 학봉 김성일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안동 열읍 향병은 영남 좌도의 의병 활동의 주축을 이루며 예안·안동·용궁·구담·일직·군위·의성·영천·경주·영주·상주·문경 일대를 누비며 매복을 통한 기습 공격과 진천뢰를 사용하여 왜적을 격퇴하는 정과를 이루었다. 안동 열병들의 끈질긴 당교 전투 공세로 인해 왜적은 영남 좌도를 더 이상 침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왜적은 당교 전투 패배로 인해 호남과 충청을 연결하는 고리가 차단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 당교 전투의 승리는 조선의 임란 극복 과정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안동 열읍 향병들의 의거는 군관민이 혼연일치되어 전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낸 모범적 의병전투사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향병일기□에는 전란의 참상.충의 정신의 실천.엄정한 군율 적용.매복 전술과 진천뢰 사용.수훈의 용사 입전.순직 영웅의 선양.당교 전투의 참여 기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병일기□는 안동 열읍 향병 창의와 전투 과정을 기록한 임진왜란 전쟁 기록 유물로, 당교 전투의 상세한 기록 등 문화적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후속 연구 성과가 이어져 근시재를 비롯한 안동 열읍 향병의 업적과 당교 전투 전과와 그 의의가 조명되길 기대한다. 부록으로 □향병일기□ 전체 내용을 도표로 제시한다.

향병일기(도표1)

연	월	일	제목	내용	인물(순국)
壬辰	4	14	동래성 함락	동래성 함락, 예안 현감 신지제 항전	송상현(순국) 신지제 윤안성
		25	상주 함락	종사관 박호, 윤섬 전사	박호.윤섬(순국)
		28	충주 함락	도원수 신립, 종사관 김여물 패전	신립.김여물(순국)
		30	임금 파천, 한양 함락	200년 도성 함락, 피난민 발생	
6	1	안동 의병 거사 발의	배용길이 김용을 찾아 의병 거사 모의	배용길 김용 김 립 신지제	
	11	안동, 봉화 의병 거사	김해 대장 추대, 300여 명 노비 차출, 김부륵 군량 협조, 이숙량 격문 회송, 춘양현 의병 거사	김용훈 김 해 이숙량 조 목 김부륵 금응협 김 해 이숙량 류종개 임 흘	
	15	용궁 패전	신지제 패전, 김용 후퇴, 배인길 전사	신지제 김 용 우현길 배인길(순국)	
	22	안동 함락			
7	1	예안 함락			
	9	왜구 안동 침입			
	17	임하현 의병	배용길의 임하현 의병 결기 독려	배용길	
	19	구담 침탈, 영천 수복	구담 침략, 박진 안동부 입성, 권응수 영천 수복, 본도 10여 읍 안정세 회복	박 진 배용길 권응수	
8	5	김성일 초유문 당도	배용길이 안동 사류를 여강서원에 소집	권영길 배용길 김윤명 김윤사 류복기 정 조	
	9	임하현 향병 거사	임하현 기사리 송정에서 향병 거사	권춘란 김 용 김윤명 김윤사 이형남 배용길 이용타 신경립 권익형 금몽일 권중윤 권태일 권덕성 권중광 안제	
	13	임하 향병 거사 호응	수 백 명 호응, 대장 김윤명, 부장 배용길 등 임명	김윤명 배용길 김윤사 이형남 이용타 남 우 권태일 김득의 김득연 류복기 권 놀 권 기	



				권익형 김 약 김 용
15	안지역 거사 발의	의성 우경총과 의흥 박연의 거사 발의		우경총 박 연
17	군병 점검	향교에서 군병 점검 및 사열		
18	대장 이정백 추대	이정백을 대장으로 추대, 경상좌도 선비들의 의병 거사 권유		이정백 김 해 박 록 배용길 김 먼 광 재우
19	일직현과 동맹 추진	금융훈, 김해가 일직현과 동맹 추진		금융훈 김 해
20	의성.의흥.군의와 동맹	동맹시 오해 풀고, 대장 김해, 부장 이정백.배용길 임명, '안동열읍항병' 지칭		김 해 이정백 배용길
21	대장.부장 본진 복귀	대장과 부장의 본진 복귀 및 군기 강화		김 해 이정백 배용길
9	1	안동 예안 의병 합진	하도 항병과 합진 위해 일직에서 모임	
	2	운산에서 합진	향교에서 10여 리 군대 대열로 이동	김 옥 조우인 박 록 흥 엄 손흥지
	3	식사 후 회진	진에서 식사 후 회군	
	4	모의사 노경필	선산 생원 노경필을 모의사로 삼음	김윤명 금융훈 이 보 노경필
	5	6원의 정비	김강과 금몽일을 장서 섬아 六員을 갖추, 권춘란과 안제, 이공이 소, 군마, 군량미 납부, 송상현 절명시	김 강 금몽일 남정순 권춘란 안 제 이 공 송상현 조 단 박 록
	6	군량 납부와 임명	권강이 군량 납부, 권행가.배득인(장서) 임명, 김태(병색군관) 임명	권 강 권행가 배득인 김 태
10	20	합진과 순찰사 서찰	예안에서 합진하고 순찰사께 서찰 올림	심 지
	21	심지에게 곤장형	예안 군사 도착, 심지에게 곤장형, 김택룡 책망	
	22	풍산현 주둔	새벽에 행군해 풍산현 주둔	

### 향병일기(도표2)

연	월	일	제목	내용	인물(순국)
壬辰	10	23	정병 파견	김윤사 중위장 임명, 정병 138명 파견, 3위 편성, 예천군 진장 주둔	김윤사 이선충 박호인
		24	왜적의 용궁 습격	안석룡 곤장형, 왜적이 용궁 분탕질, 현의 아전이 총상 입음	김 강 김경안 이연함 이종무 이수일
		25	신경립의 지휘	노포에 유진, 이적과 최두가 북병 정찰, 신경립의 용궁현 도착 및 석현에서 유진	이 적 최 두 신경립
		26	이선충의 용맹	노포에 유진, 북병장 이선충이 왜구 선봉을 제압해 용궁이 화를 면함, 우선경이 정병 50으로 석현으로 진군함	이선충 우선경

27	김한경의 용맹	이선충과 박호인이 결사대 이끌고 반암에서 정탐, 장사 김한경이 적마 2필 탈취함	이선충 박호인 김한경	
28	정병 선발	권극인과 김윤안의 정병 선발, 대장이 현감 이유요를 만남	권극인 김윤안 금몽일 신경립 이유요	
29	군사의 휴식	신경립을 보내 군사를 쉬게 함, 좌부장의 본진 복귀, 우부장의 복병 순찰, 대장의 소가산 및 석현 유숙	신경립 이 적 이정백 배용길 김해	
30	대장의 복귀와 왜구 출현	대장 본진 복귀, 좌부장이 순찰사를 만남, 우부장이 단말천에 머무름, 왜구의 출현과 민심 불안	김해 이정백 배용길	
11	1	좌부장과 우부장의 동정	좌부장 본진 유진, 신경립이 대장 명을 전함, 우부장 본진 복귀	이정백 신경립 배용길
	2	좌.우부장 동정과 왜구 침입 대비	좌부장 유진, 우부장 반암 진격, 왜구의 급습에 대비함	이정백 배용길
	3	좌.부장 동정과 장사진의 승전보	좌부장 유진, 군위별장 장사진 승전보, 우부장이 기습당함, 관군과 항병 피해 다대	이정백 장사진 배용길
	4	대장 및 좌.우부장 동정	좌부장 유진 군사 소집령 전달, 우부장 용궁 방문, 대장이 순찰사 만남, 부사 복귀	이정백 배용길 김해
	5	대장 및 좌우부장 동정과 봉화	대장과 좌부장 유진, 봉화가 오른다는 보고 받음, 대장과 순찰사 회의, 순찰사의 정병 선발	김해 이정백 이영도 김윤사 신경립 김윤사 류복기 우인경 권복원
	6	대장과 좌부장 유진	대장과 좌부장 유진, 대장의 순찰사, 도사와의 면담, 예안 군사 도착	김해 이정백
	7	좌부장의 군사 검열	대장과 좌부장의 유진, 순찰사 예안 출발, 북정에 군사 주둔	김해 이정백
	8	북정 군사 주둔	북정에 군사 주둔, 부사가 풍산에 진지 구축 지시	김해
	9	대장의 풍산 유진	대장이 풍산 진영으로 가서 유숙함	김해
	10	부사가 대장 만남	부사가 대장 만남, 안동부사를 도대장에 임명	김해
	11	부사.대장.병마사 동정	부사가 대장 만남, 병마사 풍산에 주둔, 좌부장 복귀	김해 이정백
	12	장사진 전사	군위별장 장사진의 용맹과 장렬한 순국	김해 신경립 장사진(순국)
	13	병사들의 휴식	군사의 휴식, 화살대 300개 지급	
	14	화포의 시험 발사	대장 복귀, 병마사가 포수를 보내 화포를 시험 발사	김해
	15	병마사와 순찰사 동정	병마사 안동부 복귀, 순찰사 복귀	
	16	유진		
	17	좌.우부장 동정	좌부장 복귀, 우위장 복귀	이정백
	18	왜구의 창궐	왜구의 창궐과 감천에서의 대치, 대장이 군비 축소를 반대함	김해
	22	좌부장 동정	좌부장이 풍산으로 출진	이정백
	23	좌부장과 부사의 만남	좌부장이 부사를 만남, 대장이 철군의 영을 전함	이정백 권득가 김윤안 김해

		2 4	활쏘기 조련	좌부장이 군사들에게 활쏘기 연습시킴, 복병장 함창 출격	이정백 김사권
--	--	--------	--------	--------------------------------	---------

향병일기(도표3)

연	월	일	제목	내용	인물(순국)		
壬辰	1	1	2 5	좌부장 유진	좌부장의 유진	이정백	
		2	2 6	좌부장 귀가	좌부장 가사로 부득이 귀가	이정백	
	1	2	1	1 4	우부장 복귀	우부장 복귀, 순찰사 병사 내방	배용길
			1	1 5	대장과 좌부장 합진, 김강의 중 처벌	대장과 좌부장 합진, 김여길과 김강의 종이 진을 비워 처벌 받음	김 해 이정백
		1	1 6	두 왕자 구출 계획	정병을 뽑아 두 왕자 구출 계획을 논의함	고응척 고충운 강충립 정 서 이 적	
		1	1 7	충주 왜적 합진	대장과 우부장 활쏘기 연습, 왜적 토벌 논의	고충운 강충립 김 용 김 철 구성운	
		1	1 8	고제독 방문	고제독 방문, 신경립 부친상, 예천 향병 통문 당도	김 평 오 감 금몽일 신경립	
		1	1 9	순찰사에게 4조목 건의	순찰사에게 올린 4조목, 명장 심유경과 조승훈, 이여송 7만 원군 도강	심유경 조승훈 이여송	
		2	2 0	대장과 좌부장 귀가	대장과 좌부장 귀가	김 해 이정백	
		2	2 1	병마사 동정	병마사 의병으로 출발		
		2	2 2	일본 대마도주 사망	일본 대마도주 사망 통보	김해 이정백 권득가	
		2	2 3	당교의 왜적 용궁 습격	당교 왜적이 용궁 일대를 분탕질함	권응수 김윤안	
		2	2 4	대장과 부장 동정	군량도총 이영도 복귀, 대장과 부장 활쏘기	길운득 이영도 김 해 이정백 김광도	
		2	2 5	순찰사 의성 시찰	순찰사 의성 시찰, 대장과 부장 활쏘기, 고제독이 선천도 승부	김 해 이정백 고제독	
		2	2 6	이선충의 용궁 출격	이선충이 복병 30명 거느리고 용궁 진격, 고제독 선천도 자살 강론, 홍종록의 꿈	이선충 김 강 김 태 김평오 이 적 고제독 이영도 홍종록	
		2	2 7	진천뢰 및 왜적 토벌 전공	대장이 진천뢰 가지고 감, 권응수가 왜적 21명과 내통자 8명 사살, 인동 대구 등지 왜적 1500여 명 주	권응수 기대립 강경서 김 강 채 간	

꽃 꽃 바	1	28	무당 특근 체결	무당 특근 체결, 의성 정제장 비접 당도	이선충 전 수 안복로 경 손
		29	영리고목과 서행일기	용궁 주민 침탈 참상	이선충
		1	장서 사통과 서행일기	서울 왜적 문경 주둔, 원주 왜적 충주로 이동, 이선충 부대 왜적 엄습 타격, 진천리 투척	이선충
	1	2	이선충 기습 작전	이선충이 지난 달 29일 당교 적진을 공격하여 15명 사살 및 진천리 발포	이선충
		3	좌부장과 부사의 동정	좌부장이 도사 만남, 부사가 예천으로 출발	
		4	권익의 고목	당교 왜적이 예천 서당동리 침탈, 남응원의 방문	김 해 김윤안 정 서 김 태 김 평 오 감 이 적 이경선 남응원
		5	서행일기와 산양 의병장 통문	당교 왜적의 예천 지역 분탕질, 당교 요충지 공략으로 예천 이하 등지 보전	김사원 신희도 신 심 오 식
		6	의성 군사 소집과 당교 공격	안동과 예안 향병 당교 공략, 의성 향병도 당교로 출격, 복병 활약으로 왜적 수급 뱀,	정대남 박문운 이인호 이영남 김사 권 조성중 이 신
		7	부계 정제장 강총립과 거사 모의	부계의 정제장 강총립과 거사 모의, 이영남과 군위 현감 만남	이영도 금 경 강총립 이영도 이영남
		8	거사 상의와 병마사 회접	강총립을 보내 조방장과 거사 상의, 군사들에게 활쏘기 훈련, 당교 전투시 진천리 효과	강총립 임사걸 권응수
		9	권응수 돌격 부대와 정병 신심 부대	권응수에게 정병 수천 명 거느리고 진격하나 큰 효과 없음, 신심은 공격도 못함	김 해 권응수 신 심
10		옥산 거사 실패	옥산 거사 실패, 대장이 군위에서 복귀	김윤안 김 태 이 적 이영도 오 식 오 감 이경선 정 서 금 경	
11		구충윤 방문	대장이 안덕에 머물 때 구충윤이 방문	김 해 구충윤 이영도	

향병일기(도표4)

연	월	일	제목	내용	인물(순국)
꽃 꽃 바	1	12	권계장 방문	권계장이 술을 들고 방문	이정백 권계장 민기호 신경남 고빙운
		13	활쏘기 훈련	구충윤이 대장을 모시고 활쏘기 훈련	구충윤
		14	대장과 구성윤 만남	대장이 안덕에서 귀근하는 구성윤 만남	김 해 김윤안 김 태 이 적 구명윤 구성윤
		15	대장 본진 도착	대장이 본진에 도착	김 해
		16	명군 위용과 진천리	명군의 위용, 안동의 진천리 요청, 명나라 장수의 4조항 공개	정 옥 김 태
		17	왜군 당교 주둔과 칠원 통문	왜군의 당교 주둔, 왜선 2척 부산포 정박 소식	
		18	좌부장 귀가	오후에 좌부장이 귀가	이정백
		19	좌부장 복귀	명나라 장수의 조항 당도	이정백
		20	당교 왜적의 침탈	당교 왜적이 갈평을 무참히 유린	

	21	전령	전령이 본진에 도착	
	22	본진 복귀	김모의와 금모의 및 우부장 본진 복귀	
	23	명군 작전 개시	명군의 서경 왜적 토벌 소식 당도, 개성 왜적 토벌 작전 개시	
	24	순찰사 관문 회보	사실한 적의 수효 정확한 보고 통보	
	25	대장이 복병처 순시	대장이 안기 매복처 순시	김 해
	26	명군의 활약	명군의 평양성 토벌 소식 전해 들음	
	27	군비 파악	유사, 군이, 군기 수효 파악 보고,	신경립 김사권
	29	명군의 활약	명군이 평안도.황해도.개성의 적 섬멸, 한양 회복 후 호서 및 영남 토벌 계획	김백원
	30	활쏘기	좌부장과 군관의 활쏘기, 모의, 부장 회동	이정백 김윤명 김윤사 김윤안
2	1	조방장 영리고목	왜선의 도주 행렬 시작, 임사걸이 왜적 12명 사살, 수많은 왜적이 당교에 주둔	임사걸 윤 문
	2	홍몽뢰의 전공	홍몽뢰, 사룡, 한금이 왜적 1급씩 뱀	최 두 안몽렬 강충립 홍몽뢰 사룡 한금
	3	사룡의 전공	사룡의 참획한 왜적 머리 본진 도착	김 약
	4	강충립 전공	강충립이 참한 왜적 머리 창고 보관	김윤사
	5	전령 당도	전령 당도, 순찰사 내방	
	6	치보의 낭보	당교 왜적 급습, 영천군수와 충주 진장 치보로 명군 승전 소식 들음	
	8	부장의 동정	우부장 복귀 및 좌부장 귀가	
	9	충청도 조방장 첩정	한양 왜적의 유린 참상, 명나라 군장비, 왜군의 퇴각 소식	이일도 이 일 최이상 류성룡 한응인 이덕형
	11	안동향병 성책	안동향병의 성책과 부사의 답통	
	12	좌도순찰사 유지	명군의 위세에 비해 억눌린 아군 형색, 대장과 작전 모의	김윤안 김 약 김 해 이정백 배용길
	13	대장과 신경립의 의기 투합	대장의 총의로 거사한 내력 언급과 신경립의 칭송	
	14	이여송이 류성룡에게 준 시	이여송이 류성룡에게 준 시	이여송 류성룡 이형남
	15	순찰사 동정	순찰사가 의성으로 출발함	배용길
	16	제독과 부장 동정	제독과 좌우 부장들의 동정	김득구 배용길 이정백 박수겸 신공직
	18	권태정과 권산의 용맹	권태정과 권산이 적진에 들어가 적을 사살함	권태정 권 산 배용길 이정백
	19	복병장 이선충	부장이 복병장 이선충과 용궁에서 유숙	이선충 권을생 김상현
	20	복병장 이선충	이선충이 정병 한금을 거느리고 도담에서 매복	이선충 한 금 문천우 최 현
	21	왜적 머리를 소금에 절임	정병이 속속 나타남, 왜적 머리를 소금에 절여 보관, 반암에 매복	신선 축담 이준 대장 복정 정조
	22	반암과 당교의 매복	권응수가 반암과 당교에서 매복 전투를 수행, 복병들의 활약과 수훈	이선충 한 금 신 선

	23	서행일기	왜적들의 유린과 매복병들의 급습	이선충 박호례 우천필 최 두 김이지 축담 의준 신선
	24	서행일기	명군이 개성에 도착했다고 전함	축담 주경의 황연
	25	대장과 내방자	명군의 활약과 대장 내방자	김 해 김윤안 이영남 주경의 남봉한 축담 신선 의준 천석 금용일

향병일기(도표5)

연	월	일	제목	내용	인물(순국)
쫓겨	2	26	권태정 공신첩	반암 전투, 권응수 응전, 왜적의 상주 유린, 이선충의 복귀	권태정 금용일 이진남 이원정 현 권을생 김한경 권응수 김 의 류홍록 이선충
		27	부장들의 동정	우부장과 좌부장의 동정	이주도 임경국
		28	명군의 주둔 소식	명군의 주둔 소식	
		30	최수영의 전공	최수영이 참획한 왜적 수급 바침	최수영
	3	1	좌부장 동정	좌부장이 귀가함	이정백
		4	정제장 첩정	비안 정제장 첩정을 대장에게 보냄	김 해
		5	체찰사 전언	왕자군 봉환 소식을 대장에게 전함	김 해
		6	부사의 순찰사 방문	부사가 명군 지원 일로 순찰사 방문	
		7	예천의 전통	당교의 왜적이 예천을 침략	권응수
		8	대장과 부사의 동정	대장의 일과와 부사의 복귀	이종선 홍덕희
		9	우도 이로의 서장	명군의 사기 저하와 난제 설명	이제독 한응인 오간 박정준
		10	부장과 대장 동정	부장과 대장 동정, 매복 연기	김 해 이정백 배용길
		11	도체찰사 장계 초고	명군이 권율의 전공을 칭송함	권 율
		12	유언비어 난무	명군 진군과 주둔군 내왕	채 간 사룡 김사권
		13	고언백 전공	명장수가 왜적 만 급 벤 고언백 칭송	고언백 상주목사 김해(순국)
		14	부장들의 동정	부장 동정과 두 왕자 소재	정여우 조철권
		15	진천리 탄환 수송	진천리 탄환 수송 계획	
		16	당교 왜적 분탕질	당교 왜적 예천 유천에 분탕질함	
		17	경주 판관 치보	왜적 20여 급 참획, 화물 20여 대 탈취	
		18	대장과 도사의 담화	대장이 이적의 집에서 도사와 만남	이 적
		19	내성의병장 통문	김백응과 남정순 용서를 청함	김백응 남정순
		20	복병 점검	군관 김태가 복병 점검차 풍산 순시	김 태 배용길
		21	대장의 복병 순시	대장이 안기역으로 나가 매복 순시함	김 해 배용길
22		대장과 부장 동정	우부장이 누이 장례식 관계로 저곡행	김 해 배용길 김 의 김 강	
23	대장의 군량 독촉	대장의 군량 독촉, 김윤안 내방	김 해 류복기 김 의 김행가		



	24	김충세 내방	김충세 내방과 활쏘기 훈련	김 해 권행가 김사권 김충세	
	25	신끝석의 전언	이제독 송시량이 25일 경성 수복 운운	신끝석	
	26	사릉과 권산의 전공	사릉과 권산이 참획한 왜구 수급 바침	김 강 사릉 권산	
	27	대장의 매복 전술	예천 왜적 소탕 위해 매복 전술 기획		
	28	향교 전령 당도	정병을 뽑아 왜적 소탕 작전 기획		
4	1	지친 군졸	기아와 병든 군졸		
	4	영천 공문	매복 정병 11명 보냄, 사릉의 전공	사릉	
	5	대장 부장 동정	부장과 고제독 만남, 대장과 부백 담화	김 해	
	6	사또 영리 고목	명군 추가 지원군에 대한 전언		
	7	병사의 예천 복귀	병사가 예천 진으로 향함		
	9	도체찰사 탐문 내용	명군이 동파 근처에 진을 치고 대기		
	11	병사영리 고목	인동의 왜적이 여염집 유린	김윤사	
	12	사릉의 전공	왜적 머리 3급과 전마 1필 탈취	사릉 한해 사동 손억문(전사)	
	13	도체찰사 관문	좌도 의병의 취약점 지적		
	14	상락부원군 장계	강화오국론 제시	최홍원	
	15	대장 동정	대장 오후에 귀가		
	18	순찰사영리 고목	하양 왜적, 사릉과 양수의 전공 치하	사릉	
	19	명 장군 행방 전언	명 장수들의 행방에 대한 전언	이연방	
	20	순찰사 내안	순찰사 안동부 방문		
	21	좌부장 동정	당일 귀가	이정백	
	23	복병의 전공	왜적 2급, 검, 소 8마리, 말 1필 바침		
	24	도대장 전령	인동 왜적 대비 항병을 의성에 주둔		
	25	사릉 공훈	사릉 공훈 논하려고 순찰사에게 보고		
	26	순찰사 헌괘회송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지시		
	27	기장의 적세 탐문	기장과 동래 두 지역 분탕질		
	28	대장의 약속			
	29	명군의 경성 입성	충주 수복, 명군 선봉 당교에 도착		
	5	1	명나라 장수의 태만	명나라 장수들의 태만, 매복 전술 지속	이여송 이여백 김사권 김사동
		3	순찰사 시찰	순찰사가 용궁으로 시찰 나감	
		5	대장과 장수 동정	대장과 장수들 명군 접대 위해 나감	
		7	대장 귀가	대장이 오전으로 돌아감	

